

2025-09

경제 브리프

2025. 9. 9

[최근 국내 경제 동향]

- 25.2분기 국내 경제는 건설·설비투자 부진 지속에도 국내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모두 증가 전환되며 24.1분기 이후 최대폭 성장(전기비 +0.7%)
- 25.7월 이후 국내 경제는 내수부양책과 심리회복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고, 수출은 미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

[주요이슈: 소비쿠폰의 경제적 영향 점검]

- 새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5.7월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회복되는 모습
 - * 8월 소비심리지수는 18.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신용카드 이용액도 증가
- 해외의 대규모 소비지원 사례를 살펴보면, 미국은 주로 현금지원과 세금 환급을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 정책을, 일본은 현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, 대만·홍콩은 시기 및 업종이 타겟팅된 소비 바우처를 지급
- 해외 소비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으며, 특히 세금 환급이나 현금 지원보다 소비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 지급이 소비 진작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
- 국내 카드 매출액 데이터, 예산 규모 및 과거 소비전환율을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, 1·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5년 국내 GDP 성장률을 0.12~0.17%p 정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

[25년 국내 경제 수정전망]

- 연구소는 소비 개선세와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반영하여 25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(25.5월) 0.8%에서 1.0%로 상향 조정
 - * 25년 성장률 전망치(1.0%)에는 미·중 통상협상, 반도체 경기, 건설투자 흐름에 따라 상·하방 리스크가 상존
- 25.3분기 이후 국내 경제는 소비쿠폰 지급 등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었으나, 미 관세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
 - * 연간 기준으로는 하반기 내수가 개선되었으나,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GDP 성장률이 24년 2.0%에서 25년 1.0%로 크게 낮아질 전망
- 소비자물가는 기상여건 악화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과 민간소비 반등에도, 국제유가 하락으로 24년 2.3%에서 25년 2.0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

작성자: 경영전략연구실 허문중 센터장
허지수 책임연구원
심하경 인턴

목 차

* 연구소는 한국은행이 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한 이후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, 연구소 자체 경제전망모형(WQPM) 추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연간 경제전망을 점검하고 수정 결과를 발표

I. 최근 국내 경제 동향	1
II. 주요이슈: 소비쿠폰의 경제적 영향 점검	2
III. 2025년 국내 경제 수정전망	6
[붙임]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	11

I. 최근 국내 경제 동향

■ 25.2분기 국내 경제(전기비 +0.7%)는 건설설비투자 부진 지속에도 국내정치 불확실성 해소와 반도체 호조 영향으로 소비와 수출이 모두 증가 전환되며 24.1분기 이후 최대폭 성장

* 전년동기비로는 +0.6%를 시현하여 24.1분기 이후 지속된 경기하강 흐름에서 반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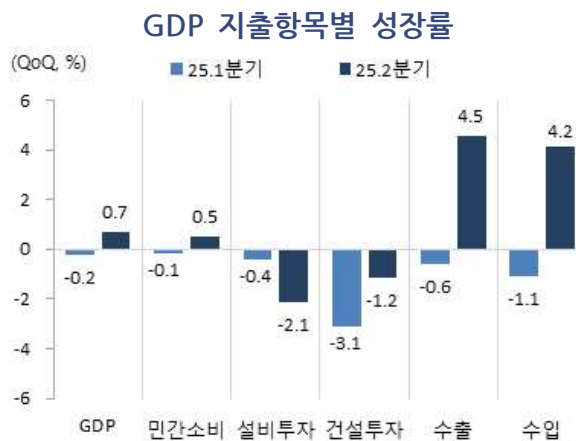
- 민간소비(25.1분기 -0.1% → 2분기 +0.5%)는 경제심리 회복에 힘입어 승용차와 오락문화(공연 티켓 판매, 음식점 소비)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
- 설비투자(-0.4% → -2.1%)는 기계류(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)와 운송장비(선박 등)의 영향으로 부진 폭이 심화
- 건설투자(-3.1% → -1.2%)는 건물·토목 위주로 5분기 연속 역성장하였으나, 감소폭은 축소

■ 25.7월 이후 국내 경제는 내수부양책과 심리회복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되고, 수출은 미 관세정책에 따른 통상여건 악화에도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라 증가세가 확대

* 소비자심리지수: 25.5월 101.8 → 6월 108.7 → 7월 110.8 → 8월 111.4

* 반도체 수출(전년동월비, %): 25.5월 19.4 → 6월 11.6 → 7월 30.6 → 8월 27.1

* 통관수출(전년동월비, %): 25.4월 3.5 → 5월 -2.4 → 6월 4.4 → 7월 5.8 → 8월 1.3



자료: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자료: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■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비 1.7%)은 집중호우·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큰 폭 상승에도, 통신 요금 50% 할인으로 오름폭이 축소

* 소비자물가(전년동월비, %): 25.4월 2.1 → 5월 1.9 → 6월 2.2 → 7월 2.1 → 8월 1.7

II. 주요이슈: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제적 효과 점검

1. 최근 소비 동향 및 민생회복 소비쿠폰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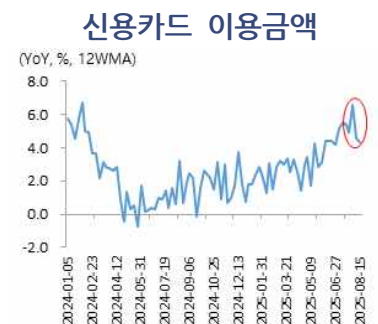
- 국내 소비(소매판매)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과 이연효과에 힘입어 21년 반짝 회복세를 보였으나, 22.2분기 이후 고금리·고물가 영향으로 25.2분기까지 역성장이 고착화
- 새 정부는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였으며, 8.28일 기준 1차 신청률은 98.2%(약 4,969만명, 지급액 9.8조원)에 달함
 - 지급수단은 신용·체크카드(69.3%), 지역사랑상품권(18.4%), 선불형(12.2%) 순이며, 신용·체크카드로 지급된 6.0조원 중 4.7조원(78.7%)이 소진
 - 20~30대는 외식에, 40~60대는 생필품에 주로 사용
 - * 행안부 분석에 따르면 지급 첫 주 가맹점 매출은 전주 대비 19.5%, 둘째 주는 8.4% 늘었고, 가장 많이 사용된 업종은 대중음식점(41.4%)으로 나타남
- 이에 힘입어 25.7월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신용카드 사용액도 회복되는 모습
 - 8월 소비심리지수(111.4)는 18.1월(111.6)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, 신용카드 이용액도 증가(전년동기비[12WMA] 6월말 4.2% → 8월초 6.6%)
 - * 8월 중순에는 지난해 같은기간 소비가 큰 폭(18.2%) 오른 기저효과로 상승폭이 둔화(4.3%)
 - 7월 소매판매(전년동기비 2.4%)는 소비쿠폰, 가전제품 환급사업 영향으로 큰 폭 증가
- 9.22일부터 10.31일까지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 90%에 1인당 10만원씩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으로, 4분기에도 소비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
 - * 2차 추경 항목 가운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 배정된 약 14조원 중 10조원은 1차 소비쿠폰에, 4조원은 2차 소비쿠폰에 사용
 - *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중위소득 21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으며, 고령층 1인가구나 맞벌이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지원을 포함한 최종기준은 9.10일 확정 발표될 예정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자료: ECOS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2. 해외 소비지원(현금·상품권 등) 사례 및 경제적 효과

■ 미국은 주로 현금지원과 세금 환급을 포함한 대규모 패키지 정책을, 일본은 현금을 직접 이체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며, 대만·홍콩은 시기 및 업종이 타겟팅된 소비 바우처를 지급

*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현금지원 외에도 실업수당 확대, 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, 대기업·항공사 등 산업지원, 병원·보건 예산 증대, 세제 혜택 등 총 2.2조 달러 규모의 포괄적 경기부양책을 추진

■ 지급 규모는 성인 1인 기준, 112~1,400달러 수준으로 국가별, 시기별로 상이

-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112~400달러가 지급(각국 월별 소득 대비로 3~11%에 해당)
-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는 600~1,400달러가 지급(11~32% 수준)

주요국 소비지원 정책 및 효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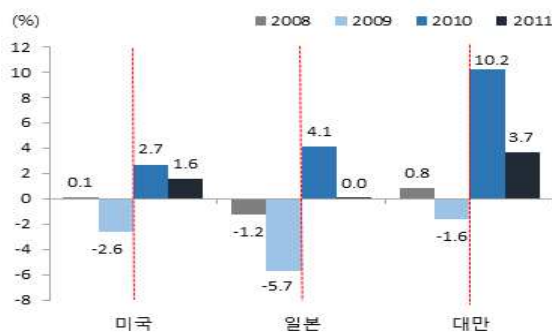
	글로벌 금융위기(2009년)			코로나19 팬데믹(2020~23년)			
	미국	일본	대만	미국	일본	홍콩	한국
경제여건	- 주택버블 붕괴로 소비투자 위축, 수출 급감	- 수출산업생산 급락 - 수출 의존 제조업자 동차전지이 크게 악화	- 수출 붕괴 제조업 가동률 급락	- 서비스 소비 붕괴와 고용소크(20.4월 실업률) 사상 최대	- 내수 서비스 수요 위축, 수출 급감 - 19년 소비세 인상 여파 누적으로 충격이 확대	- 국경관광 붕괴로 내수(민간소비) 및 서비스 수출 급락	- 서비스 소비 급락 - 글로벌 수요 급감 및 공급망 충격으로 수출이 큰 폭 감소
규모 (1인당)	(일반 근로자) 400달러	12,000엔 (\$128)	3,600 대만달러 (\$112)	1차(20.3월): \$1,200	100,000엔 (\$960)	21년 5,000 홍콩달러(\$650)	1인 가구 40만원 (\$333)
				2차(20.12월): \$600		22년 10,000 홍콩달러(\$1,300)	
				3차(21.3월): \$1,400		23년 5,000 홍콩달러(\$650)	
월소득 대비	9.6%	3.1%	10.8%	1차: 21%,	26%	21년 16%	7.6%
				2차 10.6%,		22년 32%	
				3차 24.7%		23년 16%	
방식	세액환급	현금 지급	바우처 지급 (상품권)	현금 지급	현금 지급	바우처 지급 (전자지갑 충전)	바우처 지급 (신용카드/카드 충전)
실질효과	소비	- 한계소비성향 0.3~0.5	- 한계소비성향 0.2~0.3	- 한계소비성향 0.4~0.7	- 한계소비성향 0.1	- 한계소비성향 0.7~0.8 - 쿠폰 1달러당 0.8~1.0 달러 소비↑	- 0.1~0.2%p ↑ - 한계소비성향 0.3~0.4
	GDP 성장률	09년 -2.6% → 10년 2.7%	-5.7% → 4.1%	-1.6% → 10.2%	20년 -2.2% → 21년 6.1%	-4.2% → 2.7%	-6.5% → 6.5%

주: 경제여건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과 팬데믹 시작 시점인 2020년 기준, 각국의 현금지원액은 성인 기준이며, 함께 표기한 달러 환산 금액은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. 월소득 대비 규모(%)는 각국의 당시 1인당 월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추산
자료: 각국 자료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■ 소비지원 정책은 단기적으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가져왔으며, 특히 대만과 홍콩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두드러졌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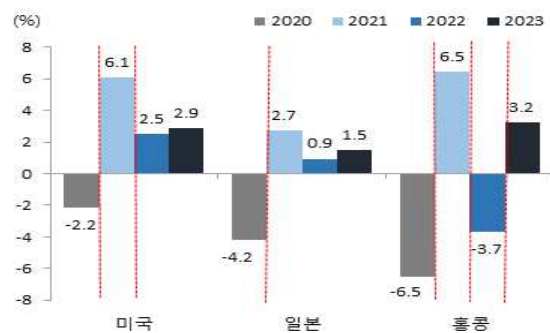
- 지급방식별로는 세금 환급이나 현금 지원보다 소비 기한과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 지급이 소비 진작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남
- 미국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현금지원 외 다른 정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고용·소비가 빠르게 회복
- 일본은 큰 규모의 현금지원에도 불구하고, 높은 현금 선호도와 낮은 한계소비성향으로 인해 소비증가 효과가 축소됨
 - * 한계소비성향(=소비증가분/소득증가분)은 새롭게 늘어난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

주요국 경제성장률(2008~2011)



주: 붉은 점선은 소비지원 지급 시점(09년)을 나타냄
자료: IMF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주요국 경제성장률(2020~2023)



주1: 붉은 점선은 소비지원 지급 시점(20~23년)을 나타냄
주2: 22년 홍콩의 역성장(-3.7%)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홍콩-중국 본토 간 육상이동이 제한되며 수출이 하락(-8.7%)한 것에 기인
자료: IMF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3.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GDP 성장률 기여효과 추정

■ 해외사례에 비추어 현금지원보다 소비 바우처(금번 민생회복 소비쿠폰)를 활용할 경우 소비진작 효과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남

- 미국의 현금지원(EIP)은 저소득층 중심의 즉각적인 소비진작에 기여했으나, 일부는 저축·부채 상환으로 흡수되며 승수효과가 제한적
- 일본의 정액급부금 제도는 일본인들의 높은 현금 선호도와 저축 성향에 따라 단기적 소비효과는 크지 않음
- 반면, 홍콩·대만의 바우처는 한국의 소비쿠폰과 같이 사용처와 기한을 특정하여 실제 소매판매 활성화 효과가 나타남

■ 국내 카드 매출액 데이터, 예산 규모 및 과거 소비전환율을 기반으로 추정된 결과, 1·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5년 GDP 성장률을 0.12~0.17%p 정도 높이는 것으로 분석

- 실제 쿠폰 지급 직후 한 달간 매출액 데이터를 활용하여 쿠폰 사용기간 동안의 소비증가분을 계산하면 GDP에 0.12%p 개선 효과로 추정
-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소비전환율을 소비쿠폰 예산에 적용할 경우 GDP 개선효과는 0.12~0.17%p로 추정

[Box: 소비쿠폰의 성장률 기여효과 추정]

① (매출 실적 기반 방식)

- 소상공인 매출액 자료를 활용하여 소비쿠폰 지급 직후 카드 매출액 증가분을 구하고 전체 소비에서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(0.7)과 사용 기간(4개월)을 고려해 명목 소비증가분($\Delta C_{\text{명목}} = \Delta \text{월 평균 카드매출액} \times 4/0.7$)을 계산
 - * 카드 매출액 산출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매출액(23년)과 한국신용데이터(KCD)의 소상공인 매출 상승률(전년동기비, 23.2분기~25.2분기 및 25.7~8월)을 활용
 - * 8.26일 한국신용데이터의 매출자료 분석 결과,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 이후 4주(7.21일~8.17일) 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6.4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
 - * 1·2차 소비쿠폰 사용 기간(7.21일~11.30일)을 고려하여 4개월간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고 가정
- 명목 소비증가분에서 대체효과 조정(소비증가 효과=0.3) 및 실질 환산(물가 영향 제외)을 거쳐 실질 소비증가분을 2.8조원($\Delta C_{\text{실질,보정}} = \frac{0.3 \times \Delta C_{\text{명목}}}{1.8}$)으로 추정
 - * 대체효과 조정은 지원금 사용이 추가적 소비인지, 기존 소비의 대체인지 구분하여 순수한 소비증가 효과만 추출하는 보정 작업을 가리키며, KDI(2020)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사용액 중 30%가 순수 소비증가분이라 가정
 - * 실질 값 환산은 명목 금액인 총 소비 증가액을 소비자물가로 나누어 실질 값으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
- 25년 연구소 실질 GDP 전망치(2,311조원) 대비 실질 소비증가분(2.8조원)의 값을 구하면 성장률 기여도가 0.12(%p)로 산출
 - * 이창용 한은 총재는 8.28일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2차 추경과 경제심리 개선으로 소비 회복세가 예상보다 커진 것이 올해 성장률을 약 0.2%p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
 - * 이외의 연구에서는 민생회복 쿠폰 정책이 최대 0.32%p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¹⁾

② (예산 기반 방식)

- 금번 예산집행액과 긴급재난지원금 당시 집행액 대비 소비증가분 비율(KDI)을 기반으로 계산해보면 성장률 기여도가 0.12%p~0.17%p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
 - * KDI(2020)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순수 소비 증가효과는 26~36% 정도라고 분석하였으며, 이를 1·2차 소비쿠폰 예산 규모(약 14조원)에 적용하여 추산

1) '민생회복 소비쿠폰, 한국경제 위기 극복할 실질적 신호탄',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, 이슈인사이트(25.7.11일)

III. 2025년 국내 경제 수정전망

■ 연구소는 소비 개선세와 양호한 수출 증가세를 반영하여 25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(25.5월) 0.8%에서 1.0%로 상향 조정

- 25년 성장률 전망치(1.0%)에는 미·중 통상협상, 반도체 경기, 건설투자 흐름에 따라 상·하방 리스크가 상존
 - * 주요기관의 25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(%): 한국은행(25.8월) 0.9, KDI(25.5월) 0.8, IMF(25.7월) 0.8, IB평균(25.8월) 1.0
 - [상향 리스크] 반도체 경기 개선 폭이 확대될 경우 25년 국내 경제 성장률은 1.0%를 넘어설 가능성
 - [하향 리스크] 미국과 중국의 통상협상이 결렬되어 세계 교역량이 감소하거나, 건설경기 회복이 제약될 경우 25년 성장률은 1.0%를 하회할 우려

[분기별 성장흐름]

■ 25.3분기 이후 국내 경제는 소비쿠폰 지급 등에 힘입어 내수가 회복되겠으나, 미 관세정책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수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

- 연간 기준으로 하반기 내수가 개선되겠으나, 건설투자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GDP 성장률이 24년 2.0%에서 25년 1.0%로 크게 낮아질 전망

2025년 분기별 GDP 성장률 전망



자료: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지출항목별 연간 GDP 성장률 전망



자료: 한국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[지출항목별 연간 성장률]

① [민간소비] 상반기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회복 지연에도, 하반기 이후 심리개선, 시장금리 하락, 소비부양책 영향으로 부진이 점차 완화되며 증가세가 소폭 확대될 전망(24년 1.1% → 25년 1.3%)

* 실질소득(전년동기비, %): 24.3분기 2.3 → 4분기 2.2 → 25.1분기 2.3 → 2분기 0.0

* 가계대출금리(잔액기준, %): 24.7월 4.8 → 12월 4.7 → 25.2월 4.6 → 4월 4.5 → 7월 4.4

* 소매판매(전년동기비, %): 25.3월 0.7 → 4월 -0.1 → 5월 -0.2 → 6월 0.3 → 7월 2.4

분기별 실질소득, 소비자물가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소비자심리지수, 소매판매 증가율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② [설비투자] 관세로 인한 교역 불확실성에도, AI 및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IT 사이클 회복,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책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전망(24년 1.7% → 25년 3.1%)

* 반도체 제조용기계 투자(전년동기비, %): 24.4분기 46.9 → 25.1분기 25.9 → 2분기 14.5

* 제조업평균가동률(%): 25.3월 74.5 → 4월 73.8 → 5월 71.3 → 6월 72.5 → 7월 72.4

설비투자지수, 제조업BSI 설비투자 전망

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통관수출, 설비투자 증가율



자료: 통계청,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- ③ [건설투자] 착공 감소의 누적 효과, 비수도권 주택시장 위축, 규제 강화 등으로 상반기 낙폭 확대 후 하반기 금융여건 완화·재정보완으로 감소폭은 축소되겠으나, 연간으로는 지난해 대비 부진이 심화될 전망(24년 -3.3% → 25년 -7.9%)

* 건설업 BSI(실적)지수(기말, 기준선=100): 23년 63 → 24년 54 → 25.2월 43 → 8월 5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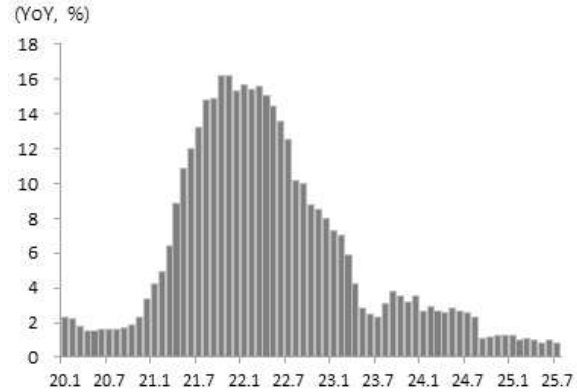
* 전국 미분양 주택(만호): 19-22년(평균) 3.6 → 25.3월 6.9 → 4월 6.8 → 5월 6.7 → 6월 6.4 → 7월 6.2

건설기성, 건설수주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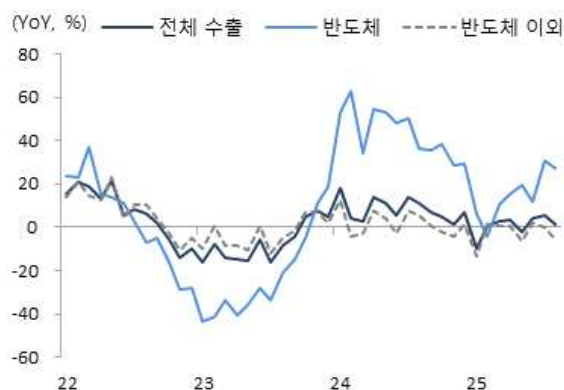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토부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- ④ [수출(재화·서비스)] AI 투자에 따른 고성능 반도체 수요 지속에도 불구하고, 미 관세정책 영향 가시화로 대미수출이 둔화되며 모멘텀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(24년 6.8% → 25년 3.5%)

* 글로벌 제조업PMI(기준선=50): 25.4월 49.8 → 5월 49.5 → 6월 50.4 → 7월 49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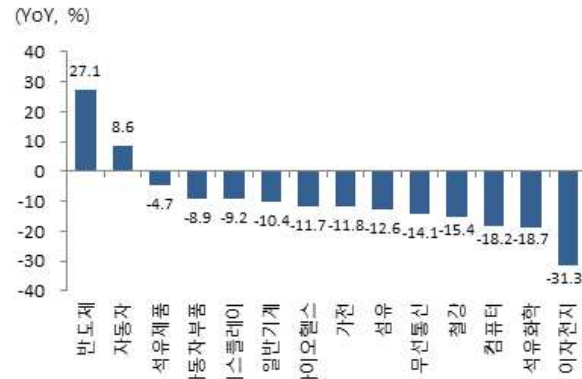
* 25.8월 자동차·부품·철강 부문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으며, 이는 한·미 자동차·부품(25%)과 철강·알루미늄 및 파생상품(50%)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에 기인

반도체 및 이외 품목 수출증감률



자료: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25.8월 품목별 통관수출



자료: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상여건 악화(폭우·폭염)로 인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에도, 국제유가 하락으로 24년 2.3%에서 25년 2.0%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

- * 25.8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(전년동월비, %): CPI 1.7, 농축수산물 4.8, 전기·수도·가스 0.3, 석유류 -1.2, 가공식품 4.2, 외식 3.1, 외식 외 3.1
- * WTI선물(월평균, 달러/배럴): 25.5월 60.8 → 6월 67.0 → 7월 67.0 → 8월 64.0

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■ 취업자는 건설·제조 고용 부진에도 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·보건복지 부문 일자리 확대와 내수경기 회복으로 인한 서비스업 호조로 증가세를 지속(24년 16만명 → 25년 18만명)

- * 25.7월 업종별 취업자 증감(전년동월비, 만명): 전체 17.2, 제조 -7.8, 건설 -9.2, 서비스 46.9(보건·사회·복지 26.2, 숙박·음식 -7.1, 정보통신 1.6, 전문·과학 9.1, 예술·스포츠 3.1, 운수 2.8, 도소매 1.3, 부동산 2.8)

취업자 증감, 실업률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업종별 취업자 증감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■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 호조, 유가하락에 따른 상품수지와 해외증권 투자 활성화에 의한 소득수지 흑자에 힘입어 흑자규모가 커질 전망(24년 990억 달러 → 25년 1,000억 달러)

- * 상품수지(억달러): 24.3분기 259 → 4분기 284 → 25.1분기 192 → 2분기 328
- * 소득수지(억달러): 24.3분기 77 → 4분기 105 → 25.1분기 85 → 2분기 61
- * 서비스수지(억달러): 24.3분기 -56 → 4분기 -60 → 25.1분기 -75 → 2분기 -76

국내 주요 거시지표 전망

	단위	2023	2024	2025F	2024				2025F			
					1/4	2/4	3/4	4/4	1/4	2/4	3/4	4/4
GDP(실질)	전기대비, %	1.6	2.0	1.0	1.2	-0.2	0.1	0.1	-0.2	0.7	1.1	0.4
	전년동기대비, %				3.4	2.2	1.4	1.1	0.0	0.6	1.5	1.9
민간소비	전기대비, %	2.0	1.1	1.3	0.5	0.0	0.4	0.2	-0.1	0.5	1.2	0.4
	전년동기대비, %				1.1	0.7	1.3	1.1	0.6	0.9	1.8	1.9
설비투자	전기대비, %	-0.2	1.7	3.1	-1.0	0.0	5.4	0.8	-0.4	-2.1	3.0	1.9
	전년동기대비, %				-2.2	-2.5	6.6	5.3	5.8	3.4	1.0	2.6
건설투자	전기대비, %	-0.5	-3.3	-7.9	4.5	-3.3	-3.6	-4.1	-3.1	-1.2	2.6	0.4
	전년동기대비, %				1.6	-1.2	-6.2	-6.4	-13.3	-11.4	-5.5	-1.6
수출(재화, 서비스)	전기대비, %	3.4	6.8	3.5	1.3	1.5	0.0	0.6	-0.6	4.5	-0.4	0.3
	전년동기대비, %				8.9	9.0	6.4	3.5	1.5	4.5	4.1	3.8
수입(재화, 서비스)	전기대비, %	3.0	2.5	3.3	-0.3	1.6	1.3	0.2	-1.1	4.2	0.1	0.0
	전년동기대비, %				-0.7	3.3	4.6	2.9	2.1	4.5	3.4	3.1
수출(통관)	전년동기대비, %	-7.5	8.1	0.5	8.0	10.1	10.5	4.2	-2.3	2.2	2.8	-0.6
수입(통관)	전년동기대비, %	-12.1	-1.7	-1.7	-11.1	-1.4	6.2	0.9	-1.4	-1.8	-1.4	-2.1
재정수지 ¹⁾	조원	-13.1	-44.4	-60.8	-	-	-	-	-	-	-	-
	GDP대비, %	-0.5	-1.7	-2.3	-	-	-	-	-	-	-	-
경상수지	억달러	328	990	1000	165	237	271	318	193	301	277	230
	GDP대비, %	1.8	5.3	5.6	-	-	-	-	-	-	-	-
소비자물가	전년동기대비, %	3.6	2.3	2.0	3.0	2.7	2.1	1.6	2.1	2.1	1.9	1.8
실업률(SA)	%	2.7	2.7	2.8	2.8	2.8	2.5	3.0	2.8	2.7	2.6	3.1
취업자 증감	전년동기대비, 만명	33	17	18	29	15	15	5	15	21	15	19
전국 주택매매가격	전기말대비, %	-4.64	-0.16	0.27	-0.30	-0.19	0.30	0.03	-0.25	0.22	0.25	0.06

주: 1) 통합재정수지는 기획재정부 추계 기준

자료: 한국은행, 관세청, 통계청, 국민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붙임

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

광공업·서비스업 생산 증가율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제조업 재고/출하비율 및 평균가동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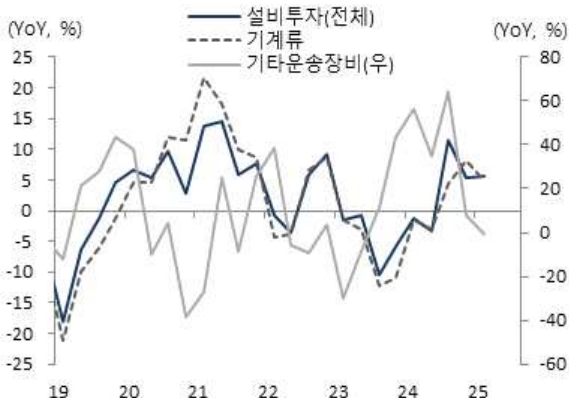
자료: 통계청

소매판매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설비투자 증가율(분기)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건설기성 및 건설수주 증가율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소비자심리지수 및 제조업 BSI 추이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수출입 증가율



자료: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수출 물량과 단가



자료: 관세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소비자물가 상승률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실업률과 취업자 증감



자료: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및 거래량



자료: 통계청, 국토교통부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



자료: 국민은행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

항목	단위	연간		분기별				월별				
		2023	2024	24.3/4	4/4	25.1/4	2/4	25.4월	5월	6월	7월	8월
광공업 생산	전기대비, %	-	-	-0.6	1.5	0.2	-0.1	-0.6	-3.3	1.7	0.3	-
	전년동기대비, %	-2.5	4.1	2.5	3.4	1.9	2.1	5.1	-0.3	1.6	5.0	-
제조업 가동률	기간평균, %	72.1	72.7	72.5	72.5	73.5	72.5	73.8	71.3	72.5	72.4	-
재고/출하 비율	기간평균, %	116.0	109.6	109.7	109.4	106.8	103.0	102.2	104.5	102.4	101.7	-
서비스업 생산	전기대비, %	-	-	-0.2	0.6	0.3	0.6	0.1	-0.2	0.9	0.2	-
	전년동기대비, %	3.4	1.1	0.2	0.6	0.4	1.4	1.0	1.1	2.1	2.1	-
소매판매	전기대비, %	-	-	0.7	-0.4	0.4	-0.9	-1.0	0.0	0.7	2.5	-
	전년동기대비, %	-1.3	-2.1	-1.5	-2.0	-0.3	0.0	-0.1	-0.2	0.3	2.4	-
설비투자	전기대비, %	-	-	10.2	-1.8	-1.7	0.0	-0.6	-5.5	-4.3	7.9	-
	전년동기대비, %	-4.8	2.9	11.5	5.3	5.7	5.3	8.3	6.6	1.4	-5.4	-
건설기성	전기대비, %	-	-	-3.8	-5.1	-6.4	-3.1	-1.2	-2.6	6.4	-1.0	-
	전년동기대비, %	7.8	-4.7	-9.1	-9.7	-21.2	-17.4	-20.9	-19.5	-12.1	-14.2	-
건설수주(경상)	전년동기대비, %	-18.3	10.9	26.8	9.7	1.1	-5.1	-10.3	4.2	-7.0	22.4	-
수출(통관)	전년동기대비, %	-7.5	8.1	10.5	4.2	-2.3	2.2	3.5	-1.3	4.4	5.8	1.3
수입(통관)	전년동기대비, %	-12.1	-1.7	6.2	0.9	-1.4	-1.8	-2.8	-5.3	3.3	0.7	-4.0
무역수지	억달러	-103	518	136	152	69	209	48	69	91	66	65
경상수지	억달러	328	990	271	318	193	301	57	101	143	108	-
소비자물가	전년동기대비, %	3.6	2.3	2.1	1.6	2.1	2.1	2.1	1.9	2.2	2.1	1.7
근원물가	전년동기대비, %	3.4	2.2	2.1	1.8	1.9	2.0	2.1	2.0	2.0	2.0	1.3
취업자 증감 실업률(SA)	전년동기대비, 만명	32.7	15.9	14.6	5.1	15.5	20.8	19.4	24.5	18.4	17.2	-
	%	2.7	2.8	2.5	3.0	2.8	2.7	2.7	2.7	2.6	2.5	-
소비자심리지수	기간평균, 지수	97.4	100.0	101.5	96.9	93.3	101.4	93.8	101.8	108.7	110.8	111.4
기업경기실사지수	기간평균, 지수	69.3	70.8	71.0	66.3	65.3	70.3	68.0	73.0	70.0	68.0	70.0
주택매매가격	전기말대비, %	-4.64	-0.16	0.30	0.03	-0.25	0.22	0.03	0.05	0.14	0.16	0.04
주택매매거래량	월평균, 만호	4.6	5.4	6.0	5.1	5.2	6.7	6.5	6.3	7.4	6.4	-
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, 우리금융경영연구소

*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·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.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(실물지표 전망 등)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